

도전의 2020년, 도약의 2021년

간사장 김 영 준 (고려대 교수)



2020년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불안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어려운 가운데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국제학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활발한 관产学研 연계를 통하러 전례 없는 학회 후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학회 창립 50주년 준비의 내실을 기하며 실력을 쌓아가는 한해였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회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식품과학과 식품영양학 분야의 명실상부 최고의 학회로서 자리매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전공분야의 학술 수준을 고양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4차산업 혁명시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식품과 영양 전 분야에 걸친 학술적 기여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이 더 큰 결실로 풍성하게 맺혀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평안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신축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